

## 지역 싱크 탱크 그대로 간다

### 대경연구원 엑스코 수장 연임 확실

대구·경북지역 '싱크 탱크 (think tank)'의 수장인 홍철 대구 경북연구원장의 연임이 거의 확실시 된다.

대구지역 컨벤션산업을 이끌고 있는 백창곤 엑스코(EXSCO) 사장의 연임 가능성도 높다.

대구시 고위 관계자는 1일 "경북도와 협의를 거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홍 원장을 대신할 만한 후임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며 유임쪽으로 가닥을 잡았음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홍 원장이 전반적으로 무리없이 연구원을 이끌어 왔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조만간 경북도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 관계자도 "홍 원장의 임기 만료까지는 아직 시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연임 여부를 논의할 때는 아

니다"면서도 "대구시와 협의, 좋은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난 2004년 대구경북연구원장에 오른 홍 원장은 최근 대구시의회로부터 대구경북연구원의 예산 일부가 칼질 당한 이후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대구경북연구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KOTRA부사장 출신으로 5년째 엑스코를 이끌고 있는 백창곤 엑스코 사장도 연임될 가능성이 높다.

백 사장은 중앙정부와의 네트워크, 업무에 대한 적극성, 기획력과 풍부한 행사 유치경험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엑스코측은 "사장의 거취는 오는 3월 말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춘기자

leejc@idaegu.com